

인천남구 민요 현대화 프로젝트
쇼케이스



남구 운전사

‘남구는 내 첫사랑, 지울 수 없는 첫사랑’

2018.2.7 (1일 2회 공연)

17:00 / 19:00

남구 학산 문화원 4층 소극장

쇼케이스 순서

1. 운전사의 하루(주제곡)
2. 수봉공원 (도화동)
3. 와룡 양조장 (송의동)
4. 계란빵 (용현동)
5. 염전의 달밤 (주안동)
6. 홍두깨가 팔미도에 떠오르다 (문학동)
7. 내 사랑 남구 (주제곡 변주)

“다시 살고 싶은 남구!”
“살아보고 싶은 남구!”

남구에 위치한 여섯 곳의 동네를 소개함으로써 남구가 갖고 있는 전통과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

인천 토박이 출신의 50대 후반의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인천 남구의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는 방식을 취한다.

택시에 탄 손님들의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는, 남구에 대한 호기심을 고양시키고 살아보고 싶은! 다시 살고 싶은! 남구로 느끼도록 만들 것이다.

시놉시스

여기 인천 남구에서 50년 넘는 세월을 보낸 택시운전사가 있다. 그에게 인천 남구는 뿌리 같은 곳이자, 첫사랑 같은 곳이기도 하다.

인천 남구 곳곳 숨은 역사와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택시운전사! 운전사는 남구에서 승객들을 태우며, 잊고 있었던 남구의 추억 속으로 들어간다.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택시에 올라타는 손님들을 통해서, 운전사는 인천 남구가 갖고 있는 매력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언제까지고 인천 남구에 살고 싶다는 택시운전사.
운전사를 통해서, 오늘 남구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창작진

기획 — 윤두율 대표

[음악창작소 더울] 대표,
(사) 인천 민예총 음악위원회 위원장
인천의 살아있는 이야기 '흔적' 기획
인천 섬 프로젝트 '노래, 또 하나의 섬' 기획
융복합 창작 음악극 '길동외전' 기획

연출 — 서동우 작가

장편소설 <이것도 추억이지>, <그의 하얀렌즈, 그녀의 붉은 렌즈>/ 동화책 <화성의 불꽃>
단편영화 <수련> (RODE국제 영화제 한국 경쟁부문 1위)
단편영화 <Choice> 각본&연출

음악 — 박상철 작곡가

[음악창작소 더울] 작곡가
(사) 인천민예총 '오마주 투 인천 아리랑' 앨범 작곡
삼성전자, SKT, 현대자동차 등 광고 40여편 작곡
YG Kplus, Musiq13 소속 음악감독

작사 — 문계봉 시인

(사) 인천 민예총 상임이사
인천문화재단 선임이사
인천시립예술단 운영위원
1995년 계간『실천문학』, 시집으로『너무 늦은 연서』

영상 — 김혜령 예술감독

[음악창작소 더울] 아트 디렉터
[청년가온누리] 대표
융복합 뮤지컬 '겨울왕국 생생 Live 음악회' 기획 및 연출
인천의 살아있는 이야기 '흔적' 앨범 영상 제작
인천 섬 프로젝트 '노래, 또 하나의 섬' 앨범 영상 제작
융복합 창작 음악극 '길동외전' 영상 기획 및 제작

협력: 음악창작소 더울 / 남구 학산 문화원 / 청년가온누리

등장인물



배우 — 이양희

택시 운전자. - 인천 남구에서 나고 자란
남구 토박이 운전자.
인천 남구 사랑이 남다른 운전자.



배우 — 박스테반

60대 남자 - 친구를 잃은 슬픔을 품고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와룡 양조장을
찾는다.
소금가게 주인 - 곳곳이 대를 이어
소금가게를 하고 있는 소금가게 주인.



배우 — 황예나

커플녀 - 결혼을 앞두고 커플남을 따라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구를 처음
찾음.
아나운서 - 극동방송국 소속의 아나운서.
여고생 - 문학경기장으로 EDM 공연을
보기 좋아하는 철부지.



배우 — 이승재

커플남 - 결혼을 앞둔 남, 어린 시절
남구에서 할머니 손에 키워짐.
사장님 - 남구에서 계란빵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둬, 현재는 빵집 프랜차이즈
사장.